



계성산우회보

제 41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5월 25일(금)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6월 정기산행

전북 진안군 마이산(馬耳山, 673m)에서

진안 고원의 중심에 위치하며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마이산은 여러번의 지각변동으로 분지가 형성되었고 솟마이산(667m)은 하늘을 뜻하는 천산(天山), 암마이산(673m)은 땅을 뜻하는 지산(地山)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다고 한다.

옛날 두 남녀 신선이 등천하다 실패하여 바위산이 되었다는 전설의 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석탑과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

신비하게 생긴 바위산에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도민 휴양지로 지정되었으며, 이갑룡 처사가 평생동안 쌓았다는 80여 무더기의 석탑과 함께 마이탑사가 유명하며, 탑사, 은수사, 금당사, 북수사, 이산묘 등의 문화재가 있다.

마이산은 봄에는 돛대봉(바다위의 돛대), 여름에는 용각봉(하늘의 용 뿔), 가을에는 마이봉(말의 귀), 겨울에는 문필봉(먹물을 찍은 붓끝)이라는 4계절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 사계절의 각각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산이 아닐까 생각 한다. 또한 조선 태조 이성계는 마이산을 두고 시를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동으로 달리는 천마는 이미 지쳤는가 / 갈 길은 먼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구나 / 연인은 몸통만 가져가고 두 귀는 남겼는가 / 두 봉우리 이루고 하늘로 솟았네

인터넷에서 발췌하였으니 좀더 역사적인 것은 인터넷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이산하면 2~3시간 산행코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며 탑사의 탑들의 풍경과 함께 그저 암·솟 마이산으로만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 마이산을 보려면 숲과 암릉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등산로를 따라오르면 광대봉을 지나 비룡대에 이어지는 경관은 마이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과 이색적인 경치에 감탄할 것이다.

능선길의 짙은 그늘 속의 맑은 공기와 싱그러 숲속길로 오르락 내리락, 로프를 타고 오르내리는 즐거움, 있을 건 다 있는 멋진 코스, 두고두고 기억될 명산으로 남을 것이다. 하여 우리동문 등산 페니아는 기왕 내친김에 하루 산행이니깐 필히 종주하기를...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령면 마이산 전경.

이런 기회 아니면 첫볼리 지나쳐 버리는 산행이니 각기에서 많이들 참석하여 좋은 추억을 남기기를 바란다.

하산 후 탐영재 주차장에서 올라다 보는 마이산, 이국적인 경관이며 또한 즉석구이 토종돼지와 막걸리는 이곳 진안 마이산 아니면 맛볼 수 없으리라!!

산행코스는 다음과 같다.

▷긴 코스 : 강정대(함미산성)-(1시간 20분) → 광대봉(1시간 20분) → 고금당(20분) → 비룡대(40분) → 봉두봉(1시간) → 암마이봉(30분) → 탑사(30분) → 남부주차장 (총소요시간 : 5시간 30분)

▷짧은코스 : 긴코스의 역으로 산행 하며 관광

글 · 류청웅(48회 · 등반대장)

<2007년분 기별 산우회비 납부안내>

산우회비는 각 기수별로 연간 1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산우회보 인쇄, 발송 및 산우회의 각종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직 납부치 않았신 기수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247-07-000915-8 (예금주 : 신대수)

<6월 정기산행 안내>

- ▶일 시 : 2007년 6월 3일(日) 07:00 (시간 지켜 주세요.)
- ▶장 소 : 모교 정문 앞
- ▶회 비 : 1만5천원(가족1만원)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과일, 간식류, 여분의 옷가지 외
-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안나푸르나 트레킹

히말라야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들

-계성산우회보 40호 연속-

<트레킹 3일째>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이번 여행의 백미인 푼힐 전망대(3,210m)에 올랐다.

숙소에서 1시간 가까이 산길을 올라 가면서, 말로만 들던 네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았다. 정상에 서니 여명이 가까워 오면서 180도로 펼쳐지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은 좌로부터 우로 ①버터플라이 ②다울라기리(8,167m 세계 6번째 봉) ③투크체어 ④닐기리 ⑤안나팡 ⑥남봉(7,219m) ⑦히운출리 ⑧마차 푸차레(6,993m) 봉이란다.

이들 산들을 세계의 등산가가 오래전 모두 정복했지만, 히말라야의 고봉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마차 푸차레 봉만은 깎아지른 빙벽과,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신성시하여 아직 미답봉이라고 한다.

주위의 산봉들이 어둠속에서 점점 밝아져 찬란한 햇살을 받으면서 황금빛을 띄우고, 저 멀리 눈 사태인양 휘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는 장엄함은 그야말로 비욘드 디스크립션(beyond description) 영어표현 그대로다.

노르웨이, 잉글랜드, 프랑스, 일본, 대만, 중국, 한국(우리 일행 뿐)에서 온 60여 명이 3,210m의 고지에서 국적과 언어는 무의미하다. 모두가 황홀해 하고 산이 주는 경건함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가 되는 등산 매니아로 서로 어울려 사진도 찍었다.

아침식사 후 구령힐 전망대(3,000m)까지 2시간 정도의 산행은 눈발도 휘날리고, 꽤 쌓인 눈길을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던 길이, 고산증세가 경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번 산행코스중 가장 좋은 코스로 기억된다.

새벽에 푼힐 전망대에서 조금 그렇게 보이던 안나푸르나 원봉(8,091m)이 여기서는 매우 선명히 보였다. 3,000m 가까운

고지대를 3시간 이상 걸어도 마을은 없고 중간에 조그마한 기념품 가게만 2군데를 지났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나 간두룽 마을(2,721m)에 있는「Annapurna Guest House」에 도착하였다. 이곳이 이번 산행중 가장 시설이 좋았던 숙박지였다. 3층으로 우리나라의 펜션은 여인숙 정도는 되는, 객실에 샤워시설과 양변기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트레킹 4일째>

여느 때와 같이 8시에 산행을 시작하여 간두룽 마을의 비탈길을 쉬엄 쉬엄 하산하였다. 모디코라 강까지 내려오니 맑은 물이 어디서 그리 많이 솟아 오르는지 전동모터로 뽑아내는 것 같았다. 강이라고 하지만 최상류 계곡이니 강폭이 개울 정도다. 강을 건너 맞은편 란드룽마을(1,565m)까지 오르막 산길은 계속 올라 톨카 마을까지 오전 산행을 마쳤다.

점심식사 후 테우탈리 마을(2,100m)까지 오르막 길을 올라, 다시 완만한 내리막 길로 포타나 마을(1,900m)을 경유하여 히말라야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담푸스 마을(1,650m)까지 총 8시간의 산행을 하였다.

2,000여m의 높은 산 기슭에 손바닥만한 다락논(밭)이 100여층을 세어도 남을 정도로 밑에서부터 거의 봉우리까지 올망졸망 붙어 있고, 주로 아낙네들이 밭일을 하면서 등산객의 서투른 인사말에 빙긋이 웃으면서 큰소리로 답해주고, 뭐가 그리 좋은지 자기들끼리 깔깔거린다. 못 살아도 행복지수가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이들을 만나보니 과연 그렇구나 하고 느껴졌다.

담푸스 마을이 가까워 오면서 좁은 오솔길이 2~3m로 넓어지고 마을 초입에 들어서니 오토바이 1대와 영업용 택시도 1대가 보였다.

5일간 일반전화도 휴대폰도, 문명의 이기라곤 접한 적이 없



▲ 100층도 넘을 듯한 히말라야의 다락 논 · 밭.

었는데 여기에 오니 이제 트레킹이 끝날 때가 되었나 보다.

저녁식사 후 스탬들과 캠프파이어를 피워 놓고 염소 큰뿔을 잡아 에베레스트 상표가 붙은 맥주와 럼주를 마시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고생했다고 고마웠다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산속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스탬들이 우리와 5일간 산행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식사를 해주고 집을 날라주는 보수가 하루에 미화 3~4달러라고 하니 우리돈의 가치로는 적은 돈이지만 이들에겐 꽤 괜찮은 직업이라서 취업경쟁도 치열하고 실력도 인정받아야만 할 수 있단다.

이것도 여름 우기 때는 날씨와 산거머리 때문에 여행객이 거의 없고 건기 5개월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한다.

등산화도 없이 슬리퍼 바람으로 우리가 가지고 간 카고백 2개를 한 사람이 짊어지고 하루 산길을 10시간 걷고 3불을

받아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트레킹 5일째>

어젯밤 조금 과음을 하였지만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서 그런지, 히말라야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새벽 3시경에 잠이 깼다. 밖에 나가니 공기는 조금 찬데 밤하늘의 별이 정말 장관이어서 경외감마저 들게 했다.

북극성, 북두칠성, 금성, 오리온 좌... 내가 별의 이름을 잘 모르니 더 이상 기술하지 못하지만 우주속의 별이란 별은 다 보인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어제 푼힐 전망대로 오르는 길에 일행중 박선생이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본 밤하늘의 선명함을 「은하수를 왜 영어로 「Milky Way」라 하는지, 우유를 흘려놓은 것 같은 은하수를 보고 감탄 했노라」고 이야기 해 주었는데 여기서도 밀키웨이로 보인다. 어제 푼힐 전망대에서 밤하늘을 볼 때는 새벽 5시경 이었는데, 오늘 새벽

은 시간도 어제보다 이르고 날씨도 매우 선명하니 더욱 밝게 빛났다.

너무 경이롭고 금방이라도 내 머리 위에 쏟아 질 것 같은 별빛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다가 아예 차가운 땅바닥에 그대로 드러 누웠다. 또랑 또랑 빛을 발하던 별빛과 높다 높은 천체를 본 그날 밤의 감동은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마지막 트레킹이니 느지막히 아침식사 후 10시경에 담푸스 마을을 출발했다. 담푸스 마을은 여태까지 지나온 안나푸르나 산마을 중 가장 컸고 농토도 꽤 넓었다. 2시간 정도 내려오니 자동차가 다니는 페디마을이다.

<다음호 계속>
글 · 황성길(51회 · 직전회장)



꽃집 자우벙

경조화환 | 관엽 | 동서양란 | 꽃바구니

전 · 국 · 배 · 달

최 돈 문 (56회 · 동기회 총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96(동인꽃도매상가입구)
TEL : (053)424-0099 FAX : (053)424-4499
H.P : 010-8822-1400
E-mail : cdm1030@hanmail.net

산행기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산행으로 기억될 기별 등반대회

일요일 아침, 전날에 내린 비로-날씨에 대한 나의 걱정과는 정반대로- 황사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화창한 햇살이 내리는 전형적인 봄날이다.

오늘은 좀 특별한 산행이 있다. 계성학교 기수별 등반대회가 있는 날이다.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막내기수로서, 기대감과 설렘,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묘한 기분이다. 집합장소인 과제사 지구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많은 동문들이 도착해 있었다.

역시 모두들 선배들 뿐이었다. 당연히 속으로 약간의 주눅이 들었다. 그러나 몇몇 알고 지내는 선배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놓이고 조금 편해졌다.

우리 78회는 이번이 처음 참가하는 터라, 일주일 전에 모여서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준비도 한다고 했다. 물론 그 핑계로 소주 판을 벌이기는 했지만... 동기애를 다지는 또 하나의 계기였다고 위로한다. 참가하는 동문들이 거의 도착했을 무렵, 개회식이 열리고, 장비 검열을 마친 뒤, 드디어 산행을 시작했다.

동기회장인 서완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파이팅을 외치고, 총동창회 산행에 역사적인 첫발걸음을 시작했다. 이 첫발걸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산행 코스는 좌측 능선을 따라 성전암을 거쳐서, 과제재와 과제봉까지 오른 뒤, 다시 과제지구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다. 등산로로 접어들자,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기쁘게 반겨주고, 조록의 나뭇잎들이 신선한 산소를 불어 주었다.

시내에서 불과 1시간 정도의 거리지만, 코를 통해 들이마시는 공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출발한지 10분이 지나자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자신을 지든 일상 속에 방치해왔던 후회와 함께 쉬고싶다는 간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조금 더 힘을 내기로 했다.

과제사에서 성전암에 이르는 길에는 연등이 뿔뿔이 달려 있었다. 벌써 초파일이구나. 약 1시간 후에 성전암에 도착했다.

성전암은 지난 3월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현재 공사중이었다. 성전암 뜰에서 햇살을 맞으며 한 모금의 약수로 지친 몸을 달랬다. 다시 과제재로 향하면서 능선을 따라가는 도중, 배꼽시계가 다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조망이 좋은 넓적 바위에 자리를 잡았다. 발아래 바로 낭떠러지였지만, 세상을 얻은 듯한 기쁨으로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동시에 번지점프를 하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도 들었다.

천천히 내딛는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출발할 때 감감해 보이기만 하던 이곳에, 지금 내가 앉아있는 것 아닌가. 세상사 모든 이치가 아마 그러하리라.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준비한 점심을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 기별등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계성총동창 산우회 회원들.

산에 오르는 큰 매력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과제봉으로 향하는 능선에는 기이한 바위들과 암봉들로 눈이 즐겁고, 시원한 바람이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다. 이제는 오히려 산행의 초반보다 힘이 덜 드는 느낌이였다. 아마도 산행 중에 같이 가고 있는 동료들과의 즐거운 대화가 나로 하여금 피로를 잊게끔 하는 것 같았다.

반환점인 과제봉을 돌아 예정

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다시 출발장소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선배들이 도착해 있었고, 여기저기서 벌써 막걸리 판이 벌어지는 듯 했다. 우리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막걸리 한 잔으로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동창회 산행에 참여하자고 결심했다.

폐회식을 마치고, 다함께 교가를 부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계성의 일부라는 긍지와 함께 계성인 모두는 하나라는 감동이 일어났다.

서로 경쟁하는 대회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등반대회여서, 처음 참가한 우리동기들은 출발 당시의 얼떨떨함과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즐거워하고 만족했다. 아마 첫출전이라 준비도 미흡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고, 계성동문에 대한 관심과 동기회에 대한 발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특별한 산행으로 기억될 것이다.

글 · 조재현(78회 · 총무)



東光環境(株)

DONG KWANG ENVIRONMENT

폐기물 운반 · 재활용 처리업

대표이사

장 동 식 (67회)

(704-17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263-6

TEL : (053)554-2281~2 FAX : (053)584-8755

H.P : 011-522-2208

제9회 총동창산우회 기별등반대회, 팔공산 파계사에서

1등 C.B-51회, O.B-60회, Y.B-70회, 총22개조, 응원단 포함 총380여명 참석

9회차를 맞이한 계성총동창회 기별등반 대회가 5월의 둘째주 일요일인 13일 팔공산 파계사 주차장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전날 늦게까지 비가오기에 기별등반대회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하는 기우심은 아침의 화창한 날씨에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8시 이전부터 파계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기수별로 삼삼오오 모여서 당일 등반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 준비물을 점검하고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하다.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넓은 공터에서 9시 정각에 개회식이 시작되었고, 기수별 팻말 앞에서 선수조 및 일반응원조가 질서 정연하게 순서에 입한다.

대구·경북의 자랑 팔공산에서 대구의 명문 계성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 권영보(62회) 감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별등반 대회는 김시우 회장님의 대회사와 김진걸 편집위원의 기도에 이어 류청웅(48회) 등반대장의 산행코스 안내와 심판관의 확인도장을 필히 찍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들은 후 기수별 장비점검 및 기념촬영을 마치고 나니 대략 한시간이 소요되었다.

대부분의 동문들이 파계사 주차장에서 파계재를 넘어 파계봉 정상을 정복하고 산림욕 길을 따라 하산하는 6Km에 걸친 선수코스를 선택한 것을 보면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격려도 하면서 우정을 나누겠다는 모습이려 여겨진다. 위로 44회 기수부터 아래로 78회 기수까지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모습이 어찌 장관이 아니겠는가. 능선을 오르는 길은 숲길이라 햇빛이 따갑지 아니하고 그동안 수없는 산행을 통해 단련된 몸들이라 누가 선수인지 가슴의 번호표가 없으면 분간할 수 없으리 만큼 섞여서 함께 잘들도 오른다.

각 코스마다 먼저 자리하신 선배 심판

위원님들께서 반가이 맞이하시며 선수들에게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에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

대부분 열두시를 전후하여 파계재 근처에서 식사를 하였고 일부는 우측 산림욕길을 따라 하산 하였다. 하산후 52회 산우회원이 거금을 들여 집행부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준비한 시원한 맥주와 냉막걸리, 소주를 맛깔스런 쭈꾸미 무침회를 안주로 하산주를 즐겼다.

이번 등반대회에는 총 22개조가 선수로 참여하여 경합을 벌였으며, 응원단 포함 총 38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기수별 참석자와 입상순위는 다음과 같다.

▷기수별 참석자 현황 : 50회(3명), 51회(선수1조,15명), 52회(선수1조,20명), 53회(선수1조,30명), 54회(선수1조,12명), 55회(선수1조,30명), 56회(선수1조,12명), 60회(선수1조,30명), 61회(선수2조,15명), 62회(선수1조,15명), 63회(선수2조,40명), 65회(선수1조,25명), 67회(선수1조,20명), 69회(선수1조,10명), 70회(선수2조,32명), 71회(선수1조,25명), 72회(선수1조,15명), 73회(선수1조, 5명), 75회(선수1조,5명), 78회(선수1조,12명)

▷등반대회 성적 : • C.B-1위:51회, 2위:52회, 3위:55회, 모범:53회, 감투:54회 장려:56회 • O.B-1위:60회, 2위:61회, 3위:67회, 모범:63회, 감투:65회, 장려:62회 • Y.B-1위:70회, 2위:71회, 3위:69회, 모범:78회, 감투:75회, 장려:72회

글 · 김진걸 (65회 · 편집위원)



집행부 소식

- ❖ 5월 10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등반대회 최종점검차 모임을 가졌다.
- ❖ 5월 24일 차기산행지인 마이산을 답사하였다.

기별 동정

◆ 제51회

5월 27일 상주 노악산으로 산행예정이다.

◆ 제52회

5월 27일 예천 학가산에서 동기회 주최로 재경동기회와 합동 산행을 가질 예정이다.

◆ 제62회

백두대간 종주행사로 5월 5일 12명의 회원이 지리산 노고단을 산행하였고, 5월 10일 10명의 회원이 육십령을 산행하였다.

◆ 제63회

5월 27일 동기회 주최로 전국에 있는 동문들이 계룡산에서 산행을 가질 예정이다.

◆ 제65회

5월 19일 토요일 산행으로 용연사에서 유가사로 17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70회

5월 6일 모교 강당에서 150명이 모여 동기회 주최로 가족체육대회를 가졌다.

◆ 제71회

5월 20일 계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0명이 모여 동기회 주최로 가족체육대회를 가졌다.

등산장비 전문점-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